



» 여름철 효과적인 파리제거 방안

여름철 효과적인 파리제거 방안

- 천적의 이용과 유인포획기를 동시에 -



김 동 환
길라씨엔아이(주) 대표

파리는 인간관계에서 대표적으로 불결한 곤충이라 할 수 있으며, 반고체성 먹이를 먹을 때 먹이의 임시 저장고인 소낭의 내용물을 토해내는 습성과 더불어 턱이나 강모와 발톱사이의 점착성 육반이 병원체를 운반하는데 적합해서 강력한 각종 세균성 전염병과 수면방해 등을 일으키는 매체이다.

호랑이도 무서워하는 파리 습성은 다음과 같다.

1. 습성

- 파리유충은 15~45℃ 사이에서 발육한다.
- 파리는 날개가 젖으면 익사한다.
- 파리는 습하고 축축한 곳을 좋아한다.
- 잡식성인 사람, 개, 돼지의 변을 초식성 동물의 변보다 훨씬 좋아한다(유충성장에 단백질이 필요하기 때문).
- 생선내장, 부패과일, 달콤한 과일, 분노, 젓갈, 피, 부패채소, 설탕 등을 좋아한다.
- 암파리는 수파리를 페로몬으로 유인한다.



카를 5세(카를로스 1세)도 파리가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수염을 길렀다

2. 좋아하는 것

필자가 사우디에서 근무했던 적이 있다. 사막이라 파리가 없을 것 같았는데 음식을 먹으려 하면 어디서 날아오는지 여지없이 파리는 음식을 나눠 먹자고 달려든다. 이와 같이 머리와 손발이 여럿인 괴물과 같이 좋아하고 싫어하는 곳이 없이 서식환경만 되면 어디든 살아 있는 해충이 파리이다. 그러나 특별히 좋아하는 것은 돼지, 소, 닭의 사육장이나 동물원 등 동물의 변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곳이나 과수원, 음식물쓰레



파리가 좋아하는 것 : 돈사, 우사, 계사, 메추리농장, 동물원, 과수원, 음식물쓰레기, 생선내장, 젓갈, 과일(망고), 피

가격이 비싸도 확실한 구제 방법 중 하나이다. 그러나 파리 서식처가 한두 곳이 아니기에 이 또한 한계가 있는 방법이다.

기, 생선내장, 젓갈, 과일(망고), 피 등 부패하거나 달콤한 것을 좋아한다.

3. 효과적인 구제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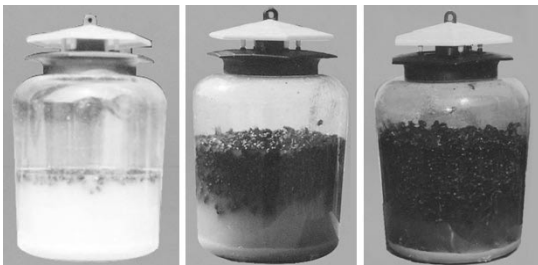
파리는 여름보다는 가을에 더욱 기승을 부린다. 여름에는 밖에서 생활하지만 가을에는 따뜻한 실내로 들어오기 때문에 여름에 구제해 놓지 않으면 가을에 파리로 인하여 홍역을 치르게 된다.

여기서 몇 가지의 구제 방법을 소개하겠다.

1) 살충제의 구제

시중에 D농약 등에서 생산하는 제품과 쿠펙스 등이 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이기도 하지만 몇 번 사용하고 나면 내성이 생겨 효과가 없다는 것과 가축에 피해가 갈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2) 천적을 이용하는 방법



설치 후 2일 경과 설치 후 10일 경과 설치 후 20일 경과

유인포획기 설치 후 경과 사진

3) 유인포획장치

설치 5~6일 후 부터 효과가 조금 늦게 나타나는 단점은 있으나 6일이 지난 뒤 부터는 유인포획기 안에 파리가 너무 많아 파리통이 날아 갈 것 같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파리의 개체 수만 된다면 3만 마리는 1주일 이내에 잡힌다. 2~3만 마리가 잡히면 뚜껑을 열어 포획된 파리를 땅에 묻어 퇴비로 사용하고 기존 포획기구에 새로운 유인제를 구입, 사용하여 유인 포획하는데 두 번째부터는 가장 경제적이고 확실한 방법으로 제거 한다. 주의할 점은 수입 포획기구는 가격이 비싸며 우리나라 실정에 맞지도 않고 유인제의 독성 성분과 공급도 원활하지 않는 단점 있었으나 2008년 G사에서 개발한 유인포획기는 누룩을 주원료로 사용하여 독성이 전혀 없는 천연 물질이라 친환경적이고 파리 1마리 잡는데 살충제 8원, 천적은 20원의 구제비용이 든다면 유인포획기는 0.3원으로 대량 포획하면서도 합리적인 구제비용으로 가장 적합하다.

기타의 구제 방법으로는 전기충격방식 파리채, 천연 기피제(제충국)로 쫓아내는 방법, 전등을 켜서 기피하는 방법 등이 있으나 이는 권장드릴사항은 아니다.

전문가들의 조언을 중심으로 하면 파리 구제는 어느 방법 하나로 하는 것보다는 천적의 이용과 유인포획기를 동시에 사용하면 확실한 구제 방법이 된다. 다만 살충제 방법의 구제는 권장 하지 않는다. 파리 잡자고 소중한 가축과 농작물에 해를 입히면 안 된다. **양계**